

겉만 '그럴듯' 바다는 '속얕이'

[제주잠녀] 106. <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77)제주시 용담어촌계

등록 : 2008년 02월 18일 (월) 16:03:39
최종수정 : 2008년 02월 18일 (월) 16:03:39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 용담어촌계 동쪽 바다. 산지어촌계와 용연 동한두기를 사이에 두고 바다여장을 갖고 있다.

입춘(立春)이 지난지 벌써 며칠이나 됐지만 아직 바다에는 잠시 따뜻하게 앉아 쉴 곳이 마땅치 않다. 바다는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지척에 있다. 사람이 표정을 바꾸듯 시시각각 푸른색의 농도를 달리하는 바다의 푸르름은 처음 찾은 사람들의 혼까지 빼놓는다. 하지만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살지' 긴 한숨으로 바다를 본다.

부촌(富村) 명성 아스라히 사라지고

올해 꼭 30년째 어촌계장을 하고 있다는 좌태준 어촌계장(72)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연신 쓴 입 맛만 다셨다.

10년전 만해도 소라만 1만kg 이상 건져내던 비옥했던 바다를 기억하기 때문이리라.

당시 기준으로 상군잠녀가 한해 500만~600만원을 '쉽게' 벌었다. 부촌(富村)으로 자리를 잡으며 수형에 당당히 지소 설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상품이 될만한 물건은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다. 문어나 성게처럼 소라·전복의 생육을 방해하는 것들만 눈에 띈다.

다끄내 잠녀 9명, 한두기(용두암) 잠녀 8명을 합해야 20명이 안된다. 이중 실제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줄잡아 열명 안팎이다.50대 3명을 제외하면 14명이 60대 이상, 이중에는 80대 잠녀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장도 넓고, 잘 빠진 해안도로에 용두암 인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산물을 판매하는 등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바다 속 마냥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다.

"처음 어촌계장을 맡을 때만 해도 생갯만 차로 7~8번 날라야 할 정도로 수확량이 좋았다"며 "지금은 잠녀들이 장사를 하려고 해산물을 사와야 할 판"이라고 아쉬워했다.



▲ 용담어촌계 양식장.

개발에 밀린 바다, 사람들

10여년전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생활하수 등의 바다 유입이 제한돼 그만큼 환경 훼손이 줄어들 거라 기대했다. 현실은 달랐다.

어장내 바닷속 돌들은 저마다 두세겹 오니(汚泥·하수 슬러지) 못을 입은 채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을 바다 멀리까지 이어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숨구멍처럼 뚫린 곳을 통해 적잖은 양의 하수가 쏟아져 나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종패를 뿌려본들 제대로 자리도 잡기 전에 폐사하고, 껍데기만 수북히 남았다. 전복·소라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니를 먹은 성게가 왕성하게 번식하는 등 '말도 못할 지경'이라는 불만이 쏟아진다.

한두기 잠녀들은 그나마 지난해 소라 종패라도 뿌렸지만 다끄내 잠녀들은 종패사업 자체를 반대했다. "제대로 자라지도 않는데다 (해안도로를) 쉴새없이 오가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바다발을 지키기 버겁다"는 게 이유다.



▲ 용담어촌계 잠녀들이 용두암에서 관광객들에게 해산물을 판해하고 있다.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을 판매하는 일 역시 '잠녀'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10여년전 마을 부인회에서 자신들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했고, 1년 넘게 다툼을 벌이다 함께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절충했다.

물래물을 지나 조금소, 큰소, 큰연되(대), 넓개, 용머루(머리), 서한두기, 동한두기, 30년 연륜과 함께 바다 이름이 죽 이어진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 좌 어촌계장은 '말머루(머리)'전설을 끄집어낸다.

가마솥 하나 가득 밥을 해 한끼에 먹어치운다는 '배큰장아'얘기다. 잘 먹여주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의 배를 면데 소나무숲(매동산)까지 지고 갈 정도로 힘이 장사에 성격이 모난 배큰장이 때문에 마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판단에 제주목사는 배큰장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쌀 7가마니로 밥을 짓고, 국도 가마솥 7개 분량을 끓여 배큰장을 먹인 마을 사람들은 배큰장이의 몸에 큰 덩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진다. 그렇게 배큰장이가 수장된 바다에서 백마가 나와 세번을 크게 울고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말머루'는 그러나 해안도로가 나면서 사라졌다.

바람에 실려 오는, 코끝을 간질이는 역겹지 않은 바다 비린내는 겨울에도 여전하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화북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